

## <2019학년도 서울 초수 합격수기>

1차 점수: 69 (전공: 56.33, 교육학: 12.67) (서울컷트 63 +6점)
2차 점수: 86.07 (실기: 22, 심층면접: 39.73, 수업실연: 15.87, 교수학습지도안: 8.47)
총점수: 155.07 (서울 컷트 145.67 +9.4점)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한 해 동안 위상t & 장지연t의 수업을 일 년 동안 수강한 합격생입니다. 운 좋게도 서울지역에 초수로 합격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초수이지만 그 전년도에도 강의를 들었기에 실제 공부는 일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임용 공부를 하면서 계획이나 전략에 있어서 고민이 있을 때, “내가 과연 맞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인가?” 많은 생각이 들 때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수기를 보면서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용기내서 그 동안 공부한 제 계획과 방향들을 최대한 상세히 적어봅니다. 예비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 일 년동안 공부하면서 굉장히 심했던 감정 기복,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1차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서 허탈하고도 허무했던 느낌, 1차 발표를 기다리면서 한 달 동안 불안감을 품은 채 애써 실기학원에 다녔던 시간들, 2차(실기, 심층면접, 수업실연, 교수학습지도안)에서 아쉬움이 너무 커서 조건 놓친 부분, 실수한 부분들만 떠오르며 매일 밤 악몽을 꾸며 2월 8일 발표 일만 기다리던 다이나믹한 1년이 스쳐지나가네요. 저의 경우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고, 전공에서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2차시험에서는 심층면접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고득점 받은 부분들(=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들)에 집중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제 합격수기는,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1. 임용고시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기수별 계획

저는 학부 때 디자인을 전공했고, 교직수업을 들으면서 교사라는 직업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과거 고등학생 때 캠퍼스라이프를 꿈꿨을 때 너무나도 가슴 설렘었는데요. 교단에 섰을 때 제 모습을 상상했을 때 고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그 설렘을 느꼈어요. 저는 꼭 미술교사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고, 학부를 최대한 빨리 졸업하고, 곧바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는 2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시험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졸업과 동시에 임용에 합격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대학원 기수별로 제가 공부했던 커리큘럼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많이 되었던 강의나 스터디는 ★표시하였습니다). 아마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이신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용공부는 2기때 시작했고, 이때는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시험과 친해지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독서실에서 순수 공부시간을 재가면서 공부한 것은 4기 부터였습니다.

1기 (2016.9~2017.2)	조교생활 / 대학원 수업 / 임용공부X
2기 (2017.3~2017.8)	대학원 수업 / 임용공부 시작 (교육학 1-2 기본강의) (교육학 1-2 기출강의)★ (전공 타강사 1-2 기본강의) /스터디(교육학, 전공 매주 만나 진도 맞추어 말하면서 복습)
3기 (2017.9~2018.2)	대학원 수업 / 교생실습 / 임용공부 진행 ●11월: 교생실습 ●12월: (강의만 듣고 복습X, 대충 공부) -전공: 타강사 3-4 심화강의, 위상 7-8 기출강의★★★ ●1-2월: (마음먹고 사범대 교직독서실 신청. 하루 7시간 출석 의무. 본격적으로 공부) (순수공부시간 4-6시간) -전공(1회독) : 1-2월 기본이론 위상(인강) 스터디 ( 세계미술용어사전 스터디 ) -교육학(1회독) : 독학 / 단권화 작업(매주 1명씩 ex. 교육심리/ 생지삼/교육사회학/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공학/교육행정/교육철학, 교육사) 스터디 (교육학 백지인증)
4기 (2018.3~2018.8)	대학원 수업 / 논문 시작 / 논문 프로포절 / 임용공부 진행 / 실기 3,4월 버스 소묘 2개월 수강 ●3-4월 (순수공부시간 4-7시간) -전공(1회독) : 3-4월 심화이론 위상(인강)★★ 기상스터디(교육과정 백지인증)★ 스터디 (대학원 동기들과 매주 분량 정해서 백지스터디)★★ 스터디 (필독서 도판 스터디) ★ 스터디 (현대미술용어사전 스터디 스터디 (미술계 뉴스, 기사 스크랩, 공유)★ -교육학 : 독학(1회독) / 단권화 노트 서브 암기(합격생이 정리한 교 육학 정리노트(한여름 저)) + 회독 (백지인증 스터디) ●5-6월 (순수 공부시간 6-7시간) -전공(1회독): 5-6 기출강의 위상 (직강) ★ 5-6 교과서 강의 위상 (인강) ★ 기상스터디(교육과정 백지인증)★ 스터디 (대학원 동기들과 매주 분량 정해서 백지스터디)★ 스터디 (필독서 도판 스터디)★ 스터디 (미술계 뉴스, 기사 스크랩, 공유) -교육학 : 독학(2회독) / 단권화 노트 서브 암기 + 회독 (백지 스터 디)

	<p>●7-8월 (순수 공부시간 8-10시간)  *이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왕복 1시간 30분을 아끼기 위해, 8월부터 집 앞 독서실로 공부장소를 바꿨습니다.  -전공(1회독): 7-8 문풀 위상 (직강)  7-8 기출 위상 (직강)★  기상스터디(교육과정 백지인증)★  스터디 (대학원 동기들과 매주 분량 정해서 백지스터디)  짜스터디 (위상 3-4월 심화 프린트 회독 백지 인증 스터디)★★  스터디 (문풀복습스터디) ★★★  -교육학 : 독학(2회독) / 단권화 노트 서브 암기 + 회독 (백지 스터디) / 문제풀이 인증 스터디</p>
<p>5기 (2018.9~2019.2)</p>	<p>논문 중간 심사 , 논문 최종 심사(임용 1주 전 πππ)/  ●9-10월 (순수공부시간 9-12시간)  -전공(4회독): 9-10 문풀 위상 (직강)★  (스터디는 최대한 온라인 스터디로 전환하고, 개인 공부시간을 확보)  기상스터디(교육과정 백지인증)  스터디(문풀복습스터디)  스터디 (위상 3-4월 심화 프린트 백지 인증 스터디)  -교육학(4회독): ㅈㅈㅈ 모고 (인강)★  기상스터디(대학원 동기랑 전화스터디 _ 모고+이론 복습)  ●11월 (순수공부시간 12-14시간)  -전공(5회독): 11월 문풀 위상 (직강)  11월 파이널 위상 (인강) ★★★  (★현대조소 작가 꼭 확인 + 추가 리서치)  기상스터디(교육과정 백지인증)  -교육학(5회독): ㅈㅈㅈ 모고 (인강)  기상스터디(대학원 동기랑 전화스터디 _ 모고+이론 복습)★★★  ●12,1월 : 2차 준비  ●2월 : 졸업 예정</p>

공부 계획 같은 경우는 위상&장지연 선생님의 2달 단위 강의 계획표를 그대로 따라가되, 그 진도에 맞게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른 세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스터디 활용, 백지쓰기 등).

저는 1-2월은 기본이론 이해, 3-4월은 기본이론 암기,+이론 확장, 5-6월은 기본이론 암기+기출+이론 확장, 7-8월은 기본이론 암기+기출+이론 확장+5-6월복습 ,..... 이런식으로 11월까지 점차 양을 늘려나가되, 회독하는 속도는 높였습니다. 또한 저는 매 강의에서 적어도 임용고시에 2문제씩은 나온다는 마음가짐으로 매 강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접어놓거나 별도의 포스트잇, 별표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그 부분에 더 집중하여 11월달

에 공부했습니다. 11월달에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매우 빠르게 회독했기 때문에 거의 잠을 조금밖에 못 잤습니다. 그런데 시험 전날에는 잠을 충분히 자자! 마음먹고 오후9시정도에 일찍 자서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시험 당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찍 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1차시험

### ●인강? 직강?

1-4월에는 학교수업도 많고, 논문도 써야하는 부담이 있어서 인강으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복습만이라도 충실하자는 마음으로 강의를 충실히 들었어요.

5월달부터는 학교수업도 많은 상황에서 직강을 어떻게 나가나 싶었으나,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직강으로 수강했습니다. 결과는 기대이상이었습니다. 직강의 열기에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고,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또한 진도도 밀리지 않고 집중도 잘 되어서 왜 1월부터 직강을 나오지 않았나 후회도 했습니다.

### ●학원 모의고사 점수 & 1차 시험 전공 점수

저는 처음 모의고사 봤을 때부터 실제 시험 점수까지 제 핸드폰 메모장에 점수, 등수를 매번 기록해뒀습니다. 흥미롭게도 점수가 항상 상승했다는 점입니다.(초반 점수가 워낙 낮아서 오를 수 밖에 없는 점수이긴 했습니다ㅎㅎ).

처음 모의고사 점수를 받았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점수를 받아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조금해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7-8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점수와 등수가 오르지 않아 매우 속상하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리 다간 올해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존감도 매우 떨어졌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시 차분히 가다듬고 점수가 깎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빠뜨린 구석은 무엇인지 제 답안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9월 첫째 주, 시험에서 점수가 50점대로 팍!!! 상승했어요. 순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이어서 시험장에서 최고의 점수를 찍고 오자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들도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시험장에서만 잘나오면 되어용 ㅎㅎ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잘한점/반성할 점을 메모장이 적어뒀습니다. 반성할 점을 예로 들면, 최지파악 나간 점, 개념 숙지 제대로 못한 점, 아는 키워드인데 인출 못한점, 시간부족으로 논술형 다 못쓴 점, 답안지 밀려쓴 점, 화이트 사용한 점 등. 그리고 최대한 이전에 했던 실수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도 나의 실수들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면 그 날의 최고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8 전공 점수	
4월 모의고사	36.60점 _ 78등/172명
56월 5주차	60등/168명
56월 7주차	13.2점 _ 58등/153명
78월 1주차	46점 _57등/168명
78월 3주차	8.6점 _35등/162명
78월 모의고사	46점 _55등/100명
78월 8주차	46.1점 _88등/160명
910월 1주차	54.1점 _ 33등/223명

910월 4주차	54.1점 _ 32등/222명
910월 7주차	55.80점 _ 50등/218명
11월 24일 1차 시험	56.33점 (1차 합격!)

### ●스터디

저는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했습니다. 제 동기들이 스터디 많이 한다고 놀리기도 했었어요. 하하.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했던 스터디 중 쓸모없는 스터디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한 해동안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나서 한 해 공부가 굉장히 즐거웠고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으며, 유익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2달단위로 강의를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스터디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암기

1차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더 많이 외워서 키워드를 작성했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암기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책에서 표로 제시되거나, 명확하게 구분되는 내용들은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시험에 출제하기 아주 좋은 부분들이니깐요!) 제가 암기하기 위해 주로 썼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래 (교육과정처럼 양 많고 단순암기에 최고)
- 앞글자 따서 외우기
- 백지쓰기 (이틀에 한번씩 펜을 다 쓸 정도로 백지쓰기 많이 했습니다!)
- 암기펜+셀로판지 (노랑진 알파가면 팔아요!, 이론이 어느 정도 숙지된 7월정도부터 암기펜으로 키워드 다 지워서 외우면 최고 좋습니다.)
- 포스트잇 활용하기 (독서실 벽 등 이곳 저곳 붙여놓기)
- 자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 녹음하기 (자기 전에 복습할 수도 있고, 다음 날 독서실 이동하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 ●기출의 중요성

개인적으로 시험에 대한 경향, 공부의 범위와 깊이, 추후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출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18년 1월 강의를 듣기 전에 급히 기출분석 강의를 수강했고, 기출에 언급된 부분을 위상1-2월 기본 이론서에 핑크색 펜으로 모두 밑줄을 긋고, 연도 표시를 했으며, 빠진 내용은 옮겨 적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본 이론을 들을 때 이론의 위계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부가 되지 않을 때 이번 년도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예상해보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부방법, 전략

저는 2달 단위로 공부의 큰 계획을 세우고, 그 달에 맞는 방법과 전략을 달리 했습니다(2달 단위로 아트패스 게시판 속 합격생들의 월별 공부방법을 참고하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상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되, 스스로 복습할 때, 암기할 때 효율적인 방법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EBS공부의 왕도나 유튜브에서 공부의 신 등 여러 공부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저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합격수기를 통해서 내 계획,전략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 고민했습니다. 또한 저는 논문을 병행해야하는 상황이었

기 때문에 주말에는 논문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또 논문 심사가 있거나 교수님과 미팅을 하는 주에는 임용공부를 거의 한 주를 통으로 못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임용을 치르기 일주일 전에 논문 심사를 보기도 했어요.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한 번 볼 때 제대로 머리에 넣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봤을 때 제대로 암기하도록 항상 노력했습니다. 또한 제 목소리로 배운 내용을 요약한 것을 녹음해서 이동하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서브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고, 3-4월 자료를 베이스로 문풀 자료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을 ★필독서나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형식으로 살을 붙여 나아갔습니다.

#### ●시험 당일

시험 전날 전공은 암기가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부분들,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던 부분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 빠르게 1회독, 중요부분들 위주(포스트잇)로 1회독, 교육과정 전체 1회독 하고 저녁에 9시정도에 잤습니다. 자기 전에 시험장에서의 내 모습을 이미지트레이닝 했어요. 전날에 일찍 자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든 점이 최고의 집중력을 쏟아 붓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택시를 타고가면서 1교시에 치르게 될 교육학 전 영역 1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첫눈이 내려서 매우 예뻐고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도시락을 안 들고 가서 살짝 배고팠습니다.

### 3. 2차시험

사실 이 시험을 이미 경험한 분들은 2차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2차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왜 그렇게 힘들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초수라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정말 겁도 없이 2차 시험에 전투적으로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차 시험은 굉장히 힘들었고(체력적으로) 1차보다 단기간 내(약 2개월)에 더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 ●실기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 미대입시를 경험한 적은 있으나, 비실기로 대학에 입학해서 실기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나마 발상과 표현은 경험해보아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인체소묘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3-4월에는 버스에서 일 주일에 한 타임, 소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1차 필기시험에만 집중했습니다. 1차 시험 바로 다음 날, 대학원 동기샘과 함께 노랑진 알파에서 미술재료들을 모두 구매하고 월요일에 바로 실기학원에 갔습니다. ㄷㄷ에 다녔고, 소묘 원장샘, 디자인 은지샘, 그리고 가족보다 더 매일 본 수강생 샘들 모두 좋은 분들이셔서 정말 즐겁게 실기 다녔습니다. 솔직히 성인이 되어서 그림이 안 늘 줄 알았는데, 현중샘과 은지샘께서 그림에 있어서 개선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단기간 내에 그림이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ㄷㄷ최고! 저는 만족할만한 실기 점수를 받았으나, 혹시 고득점을 원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다른 고득점자 선생님들 후기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수업실연,교수학습지도안

수업실연도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긴장을 했는지 스타킹에 구멍이 난 상태로 수업 실연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짐 챙길 때 감독선생님께서 알려주시더군요..스타킹에 발목부분에 구멍이 났다구요.(ㅠㅠ). 혹시 치마 입으시는 선생님들은 2차 시험장 가실 때 여분의 스타킹을 준비해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시험장 내부에 목욕탕 시계같은 빨간글씨가 나오는 스타워치가 있어요!. 긴장을 했는지 스타워치의 숫자도 잘못 읽어서 시간이 7분정도 시간이 엄청...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또 저는 나름대로 조건 지킨다고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해서 학습목표도 안 읽고 도입, 전개1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학습목표도 읽고 전개1, 전개2까지 해도 상관없는 듯 하더라구요. 또 교수학습지도안도 점수가 그리 높지 않아 고득점자 선생님들 후기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제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심층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첫인상, 자신감, 차분함, 미소, 논리성, 좋은 인상, 서울시 교육 방향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인 것 같습니다. 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사하기 까지 첫 3초 내에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 전신 거울 앞에서 인사만 50번 정도 연습한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층면접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론(교육학적 지식, 각 지역별 주요업무계획, 면접 관련 서적 내용, 교직원, 학교상황, 상담 등 등)을 암기해야합니다. 저는 ㅇ스ㅎ심층면접 강의를 수강했고, 면접관련 서적,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부분을 암기했습니다. 또 어느 개념의 장점, 단점, 실제 학교에서 적용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좋은 것일지? 미술수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학교상황에도 적용해보는 등 하나의 개념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을 구상하곤 했습니다.

#### ●이미지 트레이닝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실기 경향이 급격하게 바뀐다던가(ex.인체소묘에서 모델 두명 제시 등), 수업시연이나 면접 즉답형에서 갑자기 당황해서 말이 끊기는 등 내 자신을 스스로 잘 통제해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릿속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것이 좋습니다.

#### 4.마무리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동기생들, 스터디원들, 선생님들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또 위상 & 장지연 선생님의 직강을 수강하면서 많이 발전할 수 있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강사 선생님들을 선택하여 1년 동안 질 높은 강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10월, 11월에는 하루에 5시간 정도만 자면서 공부했고, 1차가 끝난 후 거의 4-5시간만 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매일 불을 켜놓고 잤고, 너무 피곤해서 매일 택시도 타고 다녔네요. 좀비처럼 살던 고시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수험생활에서 지칠 때를 대비해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구를 찾으셨음 좋겠어요. 저는 7-8월에 슬럼프가 왔을 때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공부하지 않고 ktx를 타고 강릉바다에 가서 힐링하고 왔습니다. 또 때로는 풀메이크업을 하거나, 예쁜 튜닝이나 운동화를 사거나,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먹거나(시험 전날에도 먹었어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한강을 걷거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거나! 등등 사소하지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칠 때는 가끔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움 덕택에 저는 이 시험에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매일 새벽기도 해주신 아빠,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신 엄마, 언니, 할머니, 교수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도 있었기에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과연 서울에서 일할 만한 역량을 지닌 교사인가, 서울지역에 지원해도 될지 망설였을 때 큰 용기를 준 부모님과 친구들 덕분에 소신 지원할 수 있었어요. 정말 꿈만 꾸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합격으로 온 가족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는 항상 겸손하게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미술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 시험에 포기하지 않고 임한다면 분명 유의미한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이팅!